

지역 소식통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7회 제2차 정례회를 18일 개회해 다음달 18일까지 31일 간의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제2차 정례회 주요 의사업정은 첫째 날인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0년도 행정 사무감사(과·관·소별 2021년도 시책업무 보고, 주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다.

또한,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과·관·소별 설명을 듣고 이경신 의원은 군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군에 버스 공영제 도입을 촉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부안읍(읍장 채종남)에서는 지난 17일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보살피고, 희망을 주는 일에 중심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협약으로 착한가게·가정을 통해 기탁된 1,400만원 사업비로 실시해 온 특화사업 대하여 회고하고, 현행 사업의 미비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열띤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공복지정책의 연계의 보완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지역복지 지원 연계를 통해 지역문제를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 연계 복지네트워크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동리 신재효 자료총서 발간

고창군, 춘향가·심청가·토벌가 사설 영인본 3권 출간  
관소리 사설 10여종 총정리... 관소리 연구 마중물 기대

고창군 관소리박물관이 18일 첫번째 동리 신재효 자료총서를 발간했다. 신재효 선생의 관소리 사설 10여종이 총정리되면서 고창 관소리와 동리 신재효 연구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리 신재효 자료총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리 신재효 선생(1812~1884)의 관소리 사설, 가사, 고문서, 유적·유물, 전기·역사자료 등을 집대성해 책으로 엮는 작업으로 영인본(원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복제한 책) 등 총 18권으로 계획돼 있다.

이번 발간 자료는 고창군과 (재)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함께 작업했다. 동리 신재효 자료총서 중 '춘향가', '심청가', '토벌가' 사설 영인본 3권을 발간했다.

첫번째 자료총서인 영인본에는 동리 신재효 사설인 가람본, 신세기장본, 성두본, 새터본, 고수본 등 10여종을 총망라해 원본을 영인하고 해제(현대어로 해설)해 출간했다. 특히 관소리 사설 이본(異本)에 대한 해제를 수록해 관소리 사설 이본간의 차이와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동리 신재효 자료총서 사업은 고창

관소리 연구 활성화와 동리 신재효 연구의 새장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 보성 등 타 지역과의 전승의 차별성과 고창의 역사적 특징을 결정하는 사업이다.

또 전북 고창이 관소리 전승과 재창조의 수도임을 밝히는 문화적 기반을 조성해 역사적인 관소리의 발전과정을 생생히 기록하는 의미도 있다. 차후 수많은 관소리 연구의 자원이 되어 관련 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고창군 관소리박물관은 후속 발간작업인 '박터령', '적벽가', '변강쇠가' 사설 영인본 완료 후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관련 연구자와 국민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서비스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 동진면, 감자 파종 '바쁘다 바빠'

한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11월이 되면 부안군 동진면의 농가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내년 4~5월 동글동글 잘 익은 황금

빛 감자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11월이 바로 파종 적기이기 때문이다. 부안군 동진면의 대표 특산물인 뽕니 뽕니 해도 감자이다. 80여 농가가



부안 동진면 농가들이 내년 4~5월 동글동글 잘 익은 황금빛 감자를 수확하기 위해 파종으로 바쁜 11월을 보내고 있다.

##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전통 발효주 실습 교육

정읍시 힐링푸드센터가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8회에 걸쳐 하반기 교육을 진행한다.

하반기 교육주제는 '힐링푸드 테라피 전통 발효식품'으로 우리 고유의 다양한 전통 발효주를 가공 실습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전통주에 어울리는 안주와 막걸리를 이용한 칵테일 제조, 과실과 곡물 및

야초 등을 활용한 전통 발효주를 가공 실습하는 교육이 진행된다.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교육생의 학습 이해도를 높이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전통 발효주 제조에 자신감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전통 발효식품 제조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농산품을 높이고 곡물과 과실, 야초 등 농산물

소비를 촉진 시키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 향토 식문화원을 활용해 건강한 자연식 음식 개발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대 보급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정읍시는 지난 17일 민선 7기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시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읍시 미래전략 지역자문단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 현안 해결 · 미래전략 '공조'

### 정읍시, 자문단과 정책간담회

정읍시는 지난 17일 민선 7기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시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읍시 미래전략 지역자문단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진섭 시장과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 신동화 지역자문단장과 11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정읍시 미래전략자문단은 정읍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제도개선 등 시정추진 방향과 미래전략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과 환경, 문화, 농업, 도시건설 등 각 분야에 전문 지역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간담회에 앞서 유 시장은 "최근 정읍시의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건립 유치 성공으로 전기안전공사, 전북은행 연수원과 더불어 지역을 키우는 새로운 동력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가 크다"면서 "더 큰 성장을 위해 차곡차곡 그리고 정성껏 시장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했다.

이어 시작된 간담회는 최갑순 기획예산실장의 정읍시 민선 7기 주요 성과와 정책 현안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특히, 항기공화국 정읍 조성, 세계적 관광을 위한 용산호 주변 개발, 정읍시 공원 개발에 의한 도심 공원 조성, SOC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 가속화,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 동화농민협회 기념시설물 조성 등 정읍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자문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시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는 등 정읍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과 국·도비 예산 확보 등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공조하고 협력해 시민이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특색있는 자연 힐링 '산악자전거 코스' 만든다

### 정읍시, 북면 · 칠보면 일원 6억원 들여 52km 구간 조성

정읍시 북면과 칠보면 일원에 산악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산악 레포츠 코스가 새롭게 조성될 전망이다.

시는 북면과 칠보면, 수정리를 경유하는 52km 구간에 특색있는 자연 힐링 산악자전거 코스 조성을 지난 17일부터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코스는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내장산 문화관광을 시작으로 북면 보림리와 칠보면 등 기존 임도를 활용한 코스 외에 수정저수지 일원이 추가된 코스다.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물론, 수

려한 운치와 맑은 공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악자전거 협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노면을 정리하고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시는 코스 조성이 완료되면 대규모 산악자전거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최고의 라이딩 장소로 조성해 정읍시민은 물론,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모든 이들에게 색다른 레포츠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